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최영지-**

「언론  사람」 10월호 상담노트 코너의 '익명보도의 딜레마'를 읽고,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 원칙이 있는데, 때로는 익명이나 이니셜로 보도하는 경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과 추문에 휘말린 것도 억울하고 기분조차 나쁜데, 매출이나 개인 또는 법인의 이미지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익명보도의 경우에도 미지의 또는 제3의 인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사는 보도를 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한 후에 보도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귀숙-

10월호 위원단상 '독서치료와 언론중재위원'을 읽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며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누구라도 자신이 지닌 재능과 소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품의 활동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중재위원인 필자께서 언론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자신도 손수 노래치료나 독서치료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강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